

SK, 최태원 회장 영향력 “감소”

이사회 중심 경영 ... 사외이사도 추천자문단 통해 과반수 확보

SK가 이사회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2년 후부터는 이사회에 7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SK는 1월3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2003년 실적 및 2004년 경영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SK는 2004년부터 이사회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들로 사외이사후보 추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사외이사 추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승인, 준법 및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SK 황두열 부회장은 “기업가치의 누수를 막아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접근할 것이며, 대주주의 역할이 크고 역량 있는 경영진 풀(Pool)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단기간 안에 독립적인 이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고 대주주는 적극 지원하며, 이해관계자는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사회와 대주주, 이해관계자가 축이 돼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04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천 과제로는 “참여연대의 조언을 참고해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를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사외이사 추천 자문단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투명 경영위원회 설립하며 이사회를 지원하는 이사회 사무국을 보강할 방침”이라며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갈등을 의식해 참여연대와 밀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소버린자산운용 등이 요구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무턱대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경영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아 검토중에 있으며, 전관 개정에 대한 논의는 새로 구성될 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안과는 별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채비율 100% 미만 달성, 글로벌 수준의 대외신인도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2>